



뉴스

작성자 허유림

읽음 4826

작성일 5일 전



언어적, 비언어적 소통 기호와 체계의 양면성을 담은

바라캣 컨템포러리가 영국 작가 엠마 하트(Emma Hart)의 한국 첫 개인전 <BIG MOUTH>를 개최한다. 막스마라 여성 미술상 수상자인 그녀는 세라믹 조각을 주 매개로 언어적, 비언어적 기호 체계가 사회의 행동 규범을 안내하면서 동시에 강요하는 현상을 은유하는 작품들을 선보인다. 이번 전시 <BIG MOUTH>는 인간 사회가 언어와 비언어적 기호 체계로 소통하면서 이를 척도로 나와 타인을 비판하고 구분하는 점에 대해 이야기한다. 전시 타이틀은 노동자 계층 출신인 작가가 중상류층이 주를 이루는 예술가 집단 안에서 자신의 언어와 비언어적 행동 양식을 의식하게 되는 경험을 암시하는 것. 특히 이번 전시에서 하트는 세라믹 재료 중 스톤웨어를 처음으로 사용한 신작을 공개했다. 고유의 색을 지닌 진흙을 사용해 그 자체로 날것의 재료성을 살렸다. 언어가 소통의 기호임을 웅변하듯, 전시된 작품 역시 일종의 언어유희적 기호로 관객들에게 다가간다. 방향을 가리키는 동시에 사람을 손가락질하는 작품과 이면·입방정·등을 표현한 말풍선 작품 등. 유머러스하고 밝아 보이는 작업에 언어와 비언어적 소통 기호 및 체계의 이면을 포착한 이번 전시는 오는 1월 23일까지 진행된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이곳](#)에서 확인해 보길.

기간 | 2021.11.24 - 2022.1.23

시간 | 화-일 10:00 - 18:00

주소 | 서울 종로구 삼청로7길 36

전시

갤러리

예술

바라캣컨템포러리

EXHIBITION

GALLERY

ART